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건의안

의안 번호	228
----------	-----

제안년월일 : 2004. 7. 15

제안자 :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장

1. 주 문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설치함에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설치여건 등 타 지역에 비해 당위성이 가장 우수한 오송 분기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함

2. 제안 이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는 신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신 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토록 하고

오송분기역 설치는 동서지역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신 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와 가장 근접하여 행정수도역 역할과 행정수도 관문공항이 될 청주국제공항과 직결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타당성이 가장 월등한 오송분기역을 조속히 결정 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님 !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와 관련하여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송분기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건의, 방문, 집회 등을 통하여 수년동안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기역 설치 문제로 도민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물론 인근 지역간 유치경쟁과 갈등이 유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업이 가시화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권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공조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 문제도 신 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간의 지역간 논쟁을 접고 오로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치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이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5일 신 행정수도 후보지 1순위가 오송에서 가장 인접된 연기·공주 지구로 결정됨으로써

분기역 설치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송분기역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송분기역은 경부·충북선과 연결된 X축 형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장차 대륙횡단철도와 연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동서지역 이용권역 확대, 중부권 주요 국가시설의
이용 및 활용 극대화, 고속철도 신설구간 단축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 행정수도 1순위 후보지와 가장
근접하여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행정수도역 역할과 함께 신 행정수도 관문공항이 될
청주국제공항과 직결됨으로써

오송분기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여건이 입증된 만큼

분기역을 신 행정수도와 연계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오송분기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나 용납될 수 없는 논리를 이용하여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또다시 유발시킨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로부터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150만 충청도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